

소외가 인간 존재의 필연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외를 이해, 연민, 애정 등과 같은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내면적 힘들로써 극복하는 일 또한 인간 존재의 또 하나의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늘날은 우리에게 인간애와 인본주의를 제시하지 않았나 싶으며, 인간애와 인본주의야말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진실이다.

## 16. 부산지역 근대초기 기독교 전래와 파급과정

동아시아학과 객 동 훈  
지도교수 구 모 룡

부산지역 기독교 전래는 한국이 일본에 의해 1876년 개항이 이루어지고, 뒤이어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들이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타의에 의하여 근대화의 서곡이 시작 될 무렵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초기 기독교가 부산에 전파되기 시작한 부분을 문헌 등을 통하여 연구하여 기술하며 미국 북장로교와 캐나다의 복음 전래의 타진과 호주 장로교의 전래 상황을 집약시켰다.

특히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부산진 교회와 미 북장로교의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초량교회 설립 역사 논쟁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지역 교회사가인 고신대 이상규 박사는 양쪽 모두 순전히 인위적인 역사관으로 교회사를 발간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부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회에서는 이 논지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 특히 교회사를 성경과 선교사들의 활동 등을 토대로 추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논쟁과 갈등의 구조가 불식되고 그 힘을 교회 성장과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래 된 복음은 선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토착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과 특히 자국민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에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백만구령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부산·경남 호주 선교부 담당지역에 1930년대 까지 무려 332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선교부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1941년에 일본에 의하여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강제 철수당한 것이다. 그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국민 중 주기철 목사는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순교(1944.4.21)까지 하는 삶을 살았는데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유리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

하고 철수한 것은 선교사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선교사는 한 국가의 파송 인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생명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교자의 자세로 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 지역에서 무려 반세기에 걸쳐 선교를 감당한 선교사들이 제대로 일본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철수한 것은 큰 실수였다.

두번째는 일제 강점기에 부산지역을 세계적인 선교 기지화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 정규신학대학교를 설립했어야 했다. 한 지역에 신학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교회설립과 일군양성과 성도들의 계속교육과 세계선교 등 교계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교사들이 철수한 이후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단 차원의 지방 신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는데 교수 확보와 교사, 학교운영 시스템에 전근대적인 열악한 모습을 무려 50여년간 진행함으로써 부산지역이 전국에서 신도 결신율이 가장 낮은 5-6% 정도를 유지하는데 그친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분은 호주 선교부나 부산지역의 모든 교계지도자들과 교회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교회의 생명인 기도운동이 지속되지 못한 점이다. 하디 선교사의 기도운동이 계속되는 것은 오늘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지교회 별로 또는 연합적으로 기도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